

'95 조림 추진목표 23,600ha

광목 50주년을 맞는 금년은 식목일도 제50회를 맞게 되는데 산림청은 올해 조림 목표표를 23,600ha로 추진 목표표를 세우고 전국민이 나무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.

추진목표 : 23,600ha(61,905천본)

- 장 기 수 : 19,100ha(56,676천본)
- 대묘조림 : 750ha(1,127천본)
- 유 실 수 : 1,390ha(554천본)
- 환경조림 : 2,360ha(3,548천본)

산림자원의 변천과 전망

산림청 임업연구원은 1972년부터 1992년까지 3차에 걸쳐 전국 산림자원조사를 실시 완료한바 있는데 그간의 산림자원 변천과정과 전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
1. 산림자원조사 연혁

- 제1차 전국 산림실태조사(9172~1975)
 - 제1차 치산녹화 10년계획 기반조성을 위한 산림기본조사
- 제2차 전국 산림실태조사(1978~1981)
 -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의 성과분석 및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의 추진자료 제공
- 제3차 전국 산림실태조사(1986~1992)
 - 산지자원화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

2. 산림자원동태

- 산림자원을 총괄하여 보면 산림면적은 평균 약 9,800ha(0.15%)씩 감소하였으나 임목축적은 연평균 9,440mm³(9.2%)씩 증가하였음.
- 임상별 산림면적은 '80년까지는 각 임상별 면적이 증가를 보이다가 '80년부터 '92년까지는 침

엽수림이 357천ha(5.5%), 혼효림이 177천ha(2.7%) 감소하였으며, 활엽수림이 522천ha(8.1%) 증가하였다. 이는 침엽수류의 병충해 및 공해로 인한 피해로 분석되고 있음.

- 미립목지가 18년간 544.1천ha가 감소한 것은 그간의 치산녹화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이며 미립목지로 남아있는 166.3천ha는 거의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암석지만 남아 있음.
- 소유별 산림면적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힘입어 18년간에 19.6%에서 21.3%로 증가하였으며, 앞으로 국가 환경자원의 중추역할을 하는 국유림 확보에 더많은 투자를 하여 2040년까지 2,634천ha를 확보 전체 산림면적의 35%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.
- 영급별 산림면적의 변천과정을 보면 '74년도에는 20년생미만 산림이 85%이었고 '80년도에는 84%로 미미한 감소 변화를 보이다가 12년이 지난 '92년도에는 57%로 감소하는 반면 20년생에서 30년생까지의 산림이 32%로 증가하였음을 보이고 있어 그간의 산림녹화 사업 결과가 본 계도에 진입하여 정상적인 산림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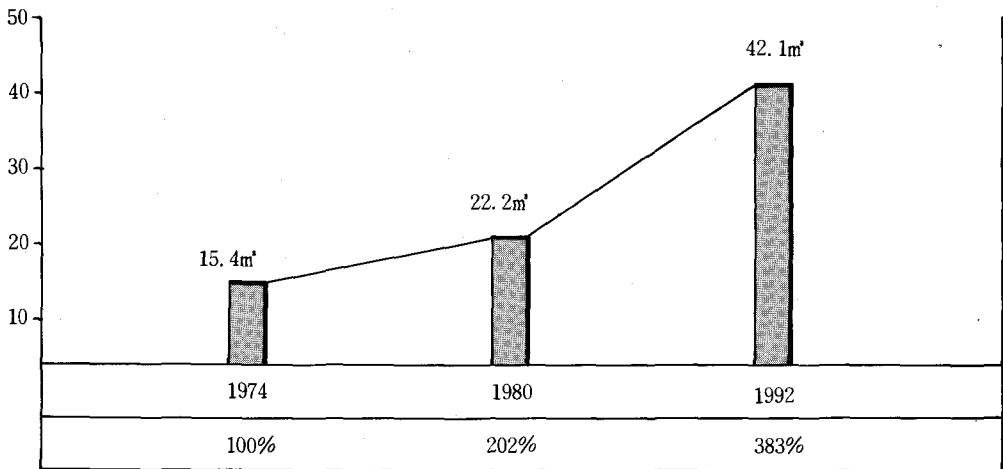
3. 산림자원의 전망

○ 산림면적은 '74년부터 '80년까지는 연간 12,200 ha씩 감소하고 '81년부터 '92년까지는 연간 8,700 ha씩 감소하여 그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확실한 시점에서는 산림 면적 감소가 정지되었다가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추정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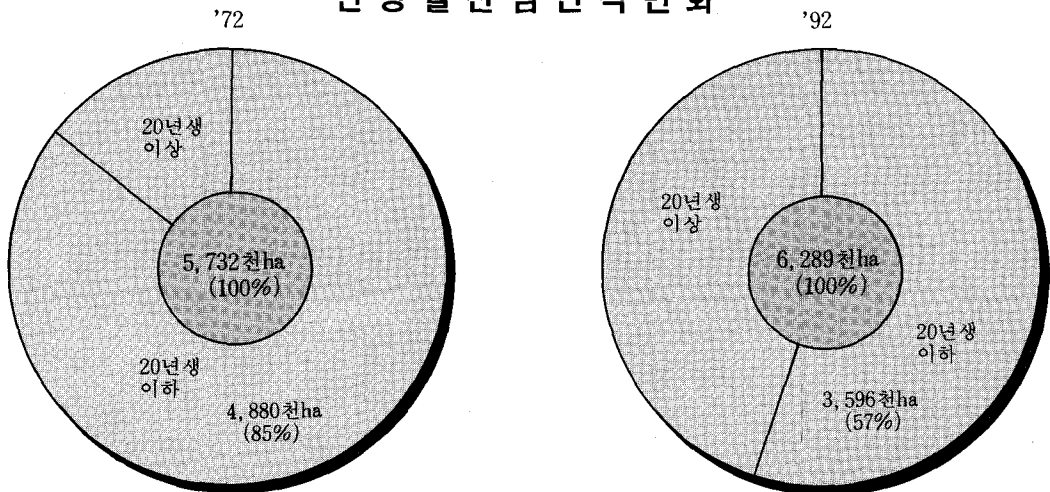
- 80% 이상의 목재 수입이 유지되고 지속적인 절벌정책이 유지된다는 가설하에 2022년까지는 1년생부터 60년생까지 어느정도 균등한 영급 배치가 달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,
- 이러한 기반위에서 적극적인 산지자원화 계획을 추진하면 2040년도에 가서는 목재자급율을 현재 13%에서 60% 선까지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ha당 임목축적변화

(단위 : m³)



연령별산림면적변화



<자료 : 산림청>